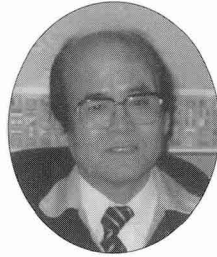


크로즈업

한국광학기기협회 20주년을 회고하며

세월이 流水와 같다고 했던가.
한국광학기기 협회가 지난 1988년 고고의 성을 올린 지도 20년이 됐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몇 사람들이 만나서 산업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정부나 학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정부와 협의를 했던 게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얘기가.



부원광학(주) 회장 박춘봉

회고해 보면 70년대 우리나라는 대한광학이라는 선두주자가 굉장한 활력으로 한국광학계를 선도해 왔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쌍안경 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좌우하는 선두주자였었고 카메라, 군수산업의 포대경 등의 광학기자체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한국광학계를 리드해 왔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0년대 전반기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광학산업도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 광학산업계가 학계나 대정부 창구역할을 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의논했던 면면을 보면, 서울광학산업(주) 이지용 사장, 당시(주)한국전광의 이찬구 사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정해일 부장, 지금은 고인이 된 (주)한국호야의 김창제 상무, 그리고 당시 한국광학기술개발(주)의 전무이사였던 본인 등이 모여서 이야기 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행히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삼성테크윈(주)(당시 삼성정밀)을 비롯한 대기업이 일본광학기업과 제휴하여 카메라 산업에 진입하면서 시들어가던 광학산업의 숨결을 이어 온 덕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 한다.

이시기는 삼성이 MINOLTA와 당시의 금성사가 CANON과, 현대전자가 OLYMPUS와, 아남정밀이 NIKON과, 동원정밀이 PENTAX와 제휴하여 광학산업에 불을 붙이던 시기였다. 또한 삼양광학(주)이 자사모델의 카메라를 출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시기였는데, 지금은 삼성테크윈만 남아 그 불길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한편, 이 시기는 일본의 “엔고” 현상으로 일본광학산업이 해외 기지를 물색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을 놓고 한창 실사를 벌이는 등 세계광학산업이 요동을 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광학엔진, 광학부품 분야 등에서 일본광학산업을 잘 받아들인 대만은 오늘날 그 규모나 인지도 등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정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광학산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하겠다. 당연히 협회가 광학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부와 산업계의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협회설립 이후 주변여건이 매우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광학세계」라는 隔月刊을 충실히 내보내면서 관심 있는 광학인의 情報源으로써의 역할을 잘해왔고, 여러 현안을 나름대로 잘 처리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

광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광학산업이 다른 산업 즉,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광학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역시 삼성 외에 또 다른 대기업이 광학산업 경쟁력 구축에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고 전자 등 기타 관련 산업발전에도 공헌하여 기존업체의 경쟁력 신장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6년 한국광학기기협회 전임회장인 이원승 회장의 이임행사 석상에서 이원승 전회장이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애써 왔지만, 후임을 대기업인 삼성테크윈 사장에게 인계 한 것이 큰 업적이다”고 해서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의미에서 협회가 현재 여러 가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업무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삼성이외의 대기업들이 광학산업에 참여하고 헌신 할 수 있도록 업계나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것이 성공하면 협회설립이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크로즈업

光學의 無限力進

우리에게 無限躍進의 활력을 길러주고 미래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한국광학기기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으니, 그동안 온갖 열정과 사명감을 불태우며 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우리 光學產業界가 국제경쟁에서 어깨를 겨누어 나가려면 정보와 지식뿐 아니라 경험과 경륜을 통한 지혜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인들 대부분이 남보다 한걸음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뛰어넘는 창의로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의식의 팽배에 光學產業界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한국광학기기협회가 정부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광학산업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특히 항상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오는 격월간 光學世界는 우리 光學產業인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기다려지는 따뜻한 동반자다. 더욱이 멀리 지방에 떨어져있는 업체에게는 光學世界가 전해주는 내용들은 값진 정보일 뿐 아니라 원군으로부터 보내주는 젖줄처럼 느껴져 격월이 길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광학인들은 귀가 가까울 정도로 들었겠지만 광학산업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광학산업은 전자, 반도체,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선진국에서는 야간에 운전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헤



서울광학산업(주) 대표 이지웅

드라이트의 빛을 조절하는 방도도 光學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병원응급실에서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혈관이 잘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게 주사바늘을 맞추기 위해 맘을 흘리는 간호사를 볼 때마다 혈관을 확실하게 파악 할 수 있는 光學장치는 왜 개발되지 않을까?

우리가 고생 끝에 개발해낸 나이트비전(야시경)이 적의 잠수함을 포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깨가 으쓱했

던 기억을 잇을 수가 없다.

그러나 3대를 이어오는 光學회사가 30명의 인원으로 연간 150억을 매출하고 있다는 한 외국의 예를 들었을 때 우리 光學產業인으로서의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전쟁시에도 光學의 힘이 좌우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없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는 IT시대 光學의 중요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우주개척에 있어 光學의 역할이 우리시대의 일이 된지는 오래다.

光學! 할 일은 많은데 머리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無限競爭시대에 適者生存이라는 말은 낯선 용어가 아니다.

기업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는 일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기원전부터 빛을 내기 시작한 光學의 힘이 이 땅 위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첨단산업으로 힘차게 성장 하도록 한국광학기기협회는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라면서, 창립 20주년에 걸친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만강의 축하를 보낸다.

크로즈업

“한국광학기기협회와 더불어”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국광학기기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어느 해 인가 물리학회와 광학 및 양자전자학 분과 워크숍에서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공업기반조성 자금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는 후배를 만났다. 우연치않게 그 후배의 소개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일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 후에 국산화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광학기기협회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1989년에는 첨단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광산업의 전망과 발전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5년 후인 1994년에도 2000년대 첨단기술 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를 도출하게 되었다. 기업체 연구원들과 학계 교수들이 호텔을 빌려 합숙하면서 한국 광산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것이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일이었고 보람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광주에 광산업진흥회가 탄생했고 국내 대학에 광학공학과가 개설되었으며 관련 연구소도 설립되었다.

20년 전 우리나라 광산업은 고전적인 광소자와 쌍안경, 현미경, 카메라 및 복사기 등 화상기기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그 수요도 매우 적었으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었다.

기술 또한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광통신, 광정보, 광계측, 의료광학기기, 레이저 가공장비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어졌으며, 광원도 LED, OED 등으로 다양해졌다. 어떤 분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 되었으며 세계 제일은 못되어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직도 원천기술에서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뒤를 쫓아오고 있어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선진국은 경쟁 대상이 되므로 예전처럼 선진 기술을 선뜻 주지 않아 이제는 자체 내에서 스스로 기술 개발을 도모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경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 능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광학기기협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연구조합 체제를 공고히 하여 서로 협동함으로써 국제 경쟁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예전에 독일이나 미국을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애로기술을 개발하여 함께 나누는 체제가 필요하다.

학계는 요즘 많이 발전하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문이 순수 학문으로 그친다면 산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실제로 산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요즘 학회에 산업체 연구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산업체 연구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체 경영진들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산업체를 방문하거나 국제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광산업이 첨단 산업임은 분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에서도 광산업을 하나의 부품산업으로 치부하여 여기 저기 흩어서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협회와 학계가 서로 뜻을 합하여 정부에 인식을 좋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산학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세계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기관은 없다. 광학기술과 학문이 산업체, 학교 그리고 연구소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